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성공적 시행 전략



허윤정 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2018년 하반기부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동네의원과 보건의료자원을 연계하여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14년 16개 시·군·구에서 시행한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16년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 및 '17년 고혈압·당뇨 등록 관리사업의 장점을 통합하여 설계되었다. 고령 인구의 급증과 만성질환 의료비 증가의 합리적 대안으로 추진되는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일차의료기관이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들의 진료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상담을 진행하는 등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가를 보상하게 된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정부 정책방향과 행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장 의료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현장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 중심의 보건의료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환자들이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의료인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또한 필수적이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일상생활에서 환자 자신의 의지와 관리 노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의료인의 전문 지식에 근거한 교육·상담 강화로 환자의 질병 관리를 지원한다면 관리효과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일차医료를 담당하는 의료인들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치료의 성과와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환자의 자기관리 역량이 개선되고 합병증이 예방이 가능해질 것이다.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예방·관리 강화로 중장기적으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

서울의대 가정의학교실 조비룡 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성질환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외사례로 본 동네의원 중심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방안’을 주제로 만성질환 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개선부 김남희 부장은 OECD국가와 비교한 한국 만성질환관리의 문제점과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만성질환관리 사업 소개 및 향후 발전 방안’을 주제로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들을 소개하였다. X